

# 대우일렉, 동부대우전자로 새출발

## 사명변경 비전 선포식...2017년 매출 5조 연내 국내시장 TV 출시 등 판매망 확충

광주에 유일한 국내 생산시설을 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사명을 동부대우전자로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지난 2002년 대우전자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로 사명을 변경한 뒤 11년 만이다.

동부대우전자는 1일 서울 대치동 동부금융센터에서 임직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대우전자 사명 및 비전 선포식'을 갖고, 사명을 '대우일렉트로닉스에서 동부대우전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영

문 사명은 'Dongbu Daewoo Electronics corporation'이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동부의 전자·IT·반도체분야의 일원으로서의 일체감을 높이고, 국내외 전자시장에서 가진 전문기업으로서의 대우 브랜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사명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또 전자사업을 향후 그룹의 핵심 주력사업으로 성장시키고, 한국의 전자산업을 대표하는 첨단 종합전자회사로 발전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대우전자는 이번 사명변경 후에도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대우' 제품 브랜드는 계속 사용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대우', '클라세'(Klasse), '미니'(Mini) 등의 브랜드를, 해외에서는 'Daewoo Electronics' 브랜드를 당분간 사용하 소비자를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부대우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글로벌 Top 수준의 첨단 종합전자기업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2017년까지 매출액 5조 원, 영업이익 3000억원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세부 추진방향으로 종합전자회사로서의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중저가 제품에서의 시장 지배력 확대 및

신규 브랜드 개발, 중남미 등지의 판매망 확충 및 시장 확대, 신제품·신모델 및 핵심기술 개발, 생산능력 확대 및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생산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이재형 동부대우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당장 신제품 출시를 서두르기도는 기존 제품을 개선하고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겠다"며 "특히 철저한 품질 관리로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동부대우전자는 최근 내부조직 개편을 하면서 아웃소싱사업부를 신설하고 20명의 영업인력을 배치했으며 아웃소싱과 관련한 기술검토와 품질 관리 인력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연내 국내 TV시장에 품질·브랜드·애프터서비스를 갖춘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론칭할 계획이다. 기술 경쟁력 있는 외부 업체에 위탁해 제조자 개발생산(ODM) 방식으로 TV를 생산하고, 청소기·에어컨·식기세척기 등도 아웃소싱을 통해 내놓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그룹은 지난해 8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뒤 올 1월8일 인수 분계약을 체결했으며 2월15일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작업을 마무리했다. 동부는 사명 변경을 계기로 소재(전자재료) 및 부품(시스템반도체·LED패키지 및 모듈)에서 완제품(가전제품·로봇·LED조명)으로 이어지는 동부의 전자사업 시너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현대삼호중공업이 1일 싱가포르 RGL사에 인도한 26만3000t급 초대형 광물 운반선(VLOC).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 현대삼호중 선박건조 5000만 DWT 달성 13년 5개월만에...전 세계에 선박 395척 인도

영양 현대삼호중공업이 국내 최단 기간 5000만 DWT의 선박 건조기록을 세웠다. 지난 1999년 10월 출몰 이후 13년 5개월만의 기록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1일 싱가포르 RGL(알지엘)사에 26만3000t급 초대형 광물운반선(VLOC)을 인도하면서 '5000만 DWT의 선박건조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DWT(deadweight tons·재화중량톤수)는 선박에 화물 및 연료, 식량 등을 실을 수 있는 무게를 의미하는 단위로 쉽게 말하면 1t 승용차 5000대를 실어날라 수 있는 선박 건조

실적을 달성했다는 뜻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출범 이래 총 395척의 선박을 전 세계에 인도했으며 세계 최대급 규모의 컨테이너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 자동차운반선, LNG선, LPG선 등이 포함됐다. 국적별로는 해운 강국인 그리스 선박 119척, 독일 선박 67척을 건조했으며 국내 선박도 45척을 건조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00년 8척의 선박을 건조해 48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에는 42척, 4조2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임동률기자 exian@

## 신세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수

신세계가 센트럴시티에 이어 서울고속버스터미널까지 사들였다.

신세계는 1일 계열사인 센트럴시티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 총 383만 6574주 가운데 SEBT투자회사가 보유한 148만6236주(지분율 38.74%)를 2200억원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센트럴시티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최대 주주가 됐다. 센트럴시티는 "경부선이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호남선이 있는 센트럴시티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투자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서초구 반

포4동 19-4에 위치, 분관·신관·고속버스 하차장까지 3개 건물이 연면적 11만㎡(3만3337평) 규모로 들어서 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060억원에 달해 자산가치가 높다.

신세계는 앞서 롯데에 인천점이 세 들어 있는 인천터미널을 뺀 직후인 지난해 10월 백화점 강남점, 메리어트 호텔, 호남선 터미널 등을 소유한 센트럴시티 지분(60.02%)을 통일교 계열 투자목적회사로부터 1조2500억 원에 사들였다. 신세계가 경부와 호남선까지 아우르는 고속터미널 상권을 재개발하면 이 지역은 명실상부한 '신세계 타운'이 된다.

/연합뉴스



국민행복기금 성공 결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가 1일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김처중 본부장 등 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행복기금 성공적 운영을 위한 캠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는 8일 국민행복기금 헌판 제막식을 개최하며 5월부터는 광주와 목포, 여수,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업무 접수를 받는다.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 3월 건설업체 체감경기 3개월만에 상승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3개월 만에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일 올해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60.3으로 전달보다 6.0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CBSI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반대를 의미한다. 지수가 이처럼 상승세를 보인 것은 3개월 만이다.

이는 CBSI가 지난 2월 30개월만에 최저치(54.3)로 떨어지던 데 따른 기저

효과에다가 공사가 없는 휴한기가 지났다는 계절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수가 여전히 기준치인 100.0에 훨씬 못 미친 60선에 불과하고 휴한기인 1월 수치(65.4)에도 못 미친 것으로 볼 때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아직 심각한 수준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연구원은 지적했다.

업체 규모별로 대형업체 지수는 3월에 69.2로 3.5포인트 떨어져 2010년 8월 이후 3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66.7로 전달보다 18.7포인트 올랐다.

/연합뉴스

## 금호타이어, 국내 첫 마모 수명 보증제 실시

금호타이어가 국내 최초로 타이어 마모에 대해 수명 보증제도를 실시한다.

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자사 타이어를 구매한 뒤 타이어 바닥면에 한계인 1.6mm 수준까지 닳았을 때 실제 주행 거리와 보증거리 간의 차이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6만km가 보증되는 타이어를 구매했을 때 50% 미만(3만km 이하) 주행 뒤 타이어 바닥면이 한계

에 다다르면 신제품으로 교환된다. 50% 이상인 경우는 재구매시 할인이 적용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열악한 도로교통 환경에 노출되는 운전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제품은 마제스티 솔루스, 시티 벤처 프리미엄 등 프리미엄 제품 외 기어를 구매했을 때 50% 미만(3만km 이하) 주행 뒤 타이어 바닥면이 한계

거리 최대 6만km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타이어를 구매한 소비자는 1만km 주행 시점마다 위치 교환 등 정기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금호타이어 웹사이트에 보증서 등록·이력 관리 내용을 정기로 업데이트해 가능하다. 금호타이어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달 10명을 추첨, 100만원권 주유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임동률기자 exian@

▼ 코스피지수 1995.99 (-8.90)	▼ 코스닥지수 553.97 (-1.05)	▼ 금리 (국고채 3년) 2.49% (-0.03)	▲ 원·달러 환율 1114.80원 (+3.70)
----------------------------	---------------------------	--------------------------------	-------------------------------

## 박삼구 회장의 애뜻한 직원사랑 이번엔 암투병 12명에 사재 털어 위로금

박삼구(68)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사재를 털어 '직원 사랑'에 나섰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일 박 회장이 암투병으로 휴직중인 그룹사 직원 12명에게 위로의 뜻과 함께 격려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최근 그룹 직원 가운데 기도암에 걸린 한 직원의 사연을 접한 뒤 암에 걸려 휴직중인 임직원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황 보고를 받은 박 회장은 지난 29~30일 휴직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 임원이 직접 근로자를 만나 위로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위로금을 받은 가족들은 최고

경영자의 격려에 큰 힘을 얻게 됐으며 표 마음을 표시했다고 그룹 측은 전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해 6월 오랜 위크아웃과 건설경기 불황으로 힘들어 하는 금호건설 전 임직원에게 사재를 털어 격려금 50만 원씩, 총 7억여원을 지급했다. 해외 현장에서 다진 베트남 직원 쯔영 빈투언씨를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박 회장이 직접 병문안하기도 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위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변경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비파괴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죽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